

이야기가 있는

# 은평 역사문화 답사

---

이야기가 있는 은평역사문화 답사

---

글 쓴 이 : 박 상 진

발 행 일 : 2014년 8월 21일

발 행 처 : 은평구립도서관

은평구 통일로 78가길 13-84

02) 385-1671~4

---

비매품

## “이야기가 있는 은평 역사문화 답사”

일 시 : 2014년 8월 24일(일) 13시-16시

강 사 : 박 상 진(은평향토사학회 회장)

(현장답사 코스) : 자씨각→ 청담사지(미륵원지)→금암기적비→ 우봉김씨 묘역→ 진관동생태계보전지역→ 삼천사

※ 답사 코스는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금암기적비와 안내문

## ◆ 자씨각(慈氏閣)

소재지 : 은평구 진관동 산100-35

진관동 탑골마을 흥창사(興昌寺) 좌측에는 자씨각(慈氏閣)이란 현관이 걸린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있다. 자씨(慈氏)는 불교에서 미륵불(彌勒佛)을 의미하는데, 범어인 마이트레야(Maitreya)에서 온 말이다. 건물 내부에는 미륵보살로 불리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문 우측 기둥에는 “鷄足頭陀傳佛衣(계족두타전불의)”라 쓴 주련이 걸려 있다. 또한 비각 앞 죽은 향나무 앞에는 상반신이 파손된 아미타정인의 수인(手印)을 한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비각 뒤쪽은 과거 청담사지와 미륵원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 ◎ 진관동 석 보살입상 (津寬洞 石 菩薩立像)

종 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15호

지정일 : 2011년 1월 13일

소재지 : 은평구 진관동 산100-35

시 대 : 고려시대

자씨각 건물 내부에 있는 미륵보살은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얼굴은 장방형으로 뺨에 살이 올라 여성적이고 온화한 인상을 주나 코나 눈 부분은 마모가 심하여 형체를 자세히 알아보기 어렵다. 석불의 코가 마모된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들의 기자신앙(祈子信仰)에 의한 훼손으로 보인다.

이마는 좁고 이목구비가 중앙으로 몰려 있는데 이러한 얼굴 표현은 나말여초의 불·보살상에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보계(寶髻)가 높게 솟



**탑골 짜씨각**

아 있고, 보계와 머리 중간에 정면과 좌우 측면에 장식이 달린 보관(寶冠)을 착용하고 있다. 불상의 육계(肉髻)처럼 높은 보계를 지닌 보살상은 강원도 원주시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등 주로 나말여초~고려 전기에 많이 나타난다. 황색 유리구슬로 만든 백호(白毫)는 후보(後補)된 것이며, 목 부분에 삼도(三道)가 표현되지 않은 것이 일반불상과 다른 점이다.

약 4등신의 단구형(短軀形) 신체는 당당하면서도 양감과 볼륨감이 넘친다. 상체에서 하체로 이어지는 굴곡이 뚜렷하고, 가슴과 둔부는 양감이 넘친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보살상에 보이는 팽팽한 긴장감과 탄력감은 사라져 시대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풍만한 양감과 볼륨감을 나타내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저하되는 점, 약 4등신의 신체 비례감, 균일한 간격으로 형식화된 옷주름의 표현 등 고려 전기 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짜씨각 안 석불**

법의는 양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으로 어깨 양쪽에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가슴, 허벅지, 종아리부분은 부드러운 곡선형의 옷주름 문양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풍만한 신체 양감표현을 잘 드러내었다.

수인(手印)의 경우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약지만을 약간 들고 있는 형태로 가슴부분으로 손을 올려 무언가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손바닥에 손금이 나타나 있다. 또한 왼손은 손을 아래로 내려 하체의 법의를 조금 뒤로 감싸는 듯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머리부분에서

발목까지는 160cm, 머리에서 목 부분까지는 43cm이다.

이와 같이 높게 솟은 보계와 대의형 천의를 걸치고 있는 특징은 현재까지 주로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의 보살상에서 조사되었다. 그런데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진관동 석 보살입상이 서울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시대양식의 연구 및 중부지역 보살상 연구 등 고려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진관동 석 보살입상이 불교가 매우 융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삼각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바로 인접한 지역에 대한 발굴 과정에서 ‘청담사(靑潭寺)’명 기와가 발견됨에 따라 최치원이 언급한 화엄십찰(華嚴十刹) 중 ‘삼각산 청담사’일 가능성이 있어 당시 불교의 일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 ◎ 진관동 석아미타불좌상 (津寬洞石阿彌陀佛坐像)

종 목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51호

지정일 : 2011년 1월 13일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100-35

진관동 석 보살입상 앞 석조부재 위에 있는 나말여초 시기의 아미타불좌상(阿彌陀佛坐像)이다. 이 불상은 아미타불만이 지을 수 있는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을 짓고 있어 존명(尊名)이 아미타불임을 알 수 있다. 아미타정인은 금강정경계(金剛頂經系) 의궤(儀軌)에 나오는 밀교계 도상(圖像)으로 신라 하대에 전래되어 나말여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고려 후기에 다시 나타난다. 현전하는 예로는 경상북도 풍기 비로사(毘盧寺) 석조아미타불좌상과 경주 분황사(芬皇寺) 석조아미타불좌상 등 극소수만 존재한다.

다리는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고 있으며 다리를 덮은 옷자락에는



**자미각 아미타불상 수인 모습**

불상이고, 아미타정인 불상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미술사적 보존가치가 크다.

비스듬한 사선의 옷 주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조각되어 있다.

진관동 석 아미타불좌상은 상반신이 파손되는 등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좋지 않으나 아미타정인의 수인(手印)을 한 불상이 우리나라에서 극히 희소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아미타정인

### ◆ 청담사지(靑潭寺址) · 미륵원지(彌勒院址)

소재지 : 진관동 산100-35

이곳 은평구 진관내동 429 발굴현장은 신라 화엄 10대 사찰의 하나인 청담사(靑潭寺)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2007년 12월부터 한강문화재연구원(원장 신숙정)이 은평뉴타운 예정지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자락인 응봉(鷹峯:235.7m) 능선 하단부 구릉지에 청담사가 있었음을 밝혀주는 명문기와가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문헌에만 남아있던 청담사의 위치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약 80평의 발굴 현장에선 약 1톤가량의 와편이 나왔는데, 이 중 명문이 있는 것이 평기와편 5점이다. 전체적으로 내용 관독이 가능하며, 기와에 명문 타날시 글자 좌우가 바뀐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날판에 명문을 각인해 기와에는 글자 좌우가 바뀌어 있다. 명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삼각산청담사삼보초(三角山靑潭寺三寶草)’이다.



하지만 청담사는 그동안 문헌에만 언급되고 그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었다. 청담사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통일신라 말엽의 학자인 최치원(崔致遠)이 효공왕 8년(904)에 저술한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 “해동 화

### 궐토된 기와의 모습

니 한주(漢州:한양)의 부아악(負兒山:북한산의 옛 이름) 청담사(靑潭寺)도 그 중 하나이다”(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漢州負兒山靑潭寺也)란 기록이다.

하지만 이곳 시굴조사를 담당 한강문화재연구원은 이번에 발굴조사된 건물지가 바로 청담사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또는 나말려초(羅末麗初)로 비견될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는 데다 일반 사찰 건물과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들어 지도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역원터(驛院址)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여러 기록으로 보아 이곳을 <미륵원터(彌勒院址)>로 보고 있다. 이는 『상촌선생집』 제56권 「지(志)」 <중국이 시종 군사를 내보내 도와준 것에 관한 기록[天朝先後出兵來援志]>에 벽제관 전투에서 선발대로 정탐에 나섰던 명나라 부총병 사대수(查大受)의 활동 부분 때문이다.

“부총병 사대수(查大受)가 모화관(慕華館)까지 정탐하고 돌아왔으며 선봉이 곧장 벽제(碧蹄)에 이르렀다. 제독도 평양에서 잇따라 출발하여 25일에 개성부에 들어갔으며, 27일 새벽 덕진(德津)을 거쳐 파주(坡州)에 진영을 설치했다.

동틀녘에 적 수백 명이 미륵원(彌勒院) 앞 들판에 나와 진을 쳤는데,





평당사 명문이 새겨진 기와

사대수가 공격하여 1백 30급을 베고 나서 치품(馳稟)하기를 “적의 사기가 이미 떨어졌으니 속히 진격했으면 한다.” 하였다.1)

그런데 이 미륵원의 정확한 위치는 다음 기록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즉 성종 즉위년 기축(1469, 성화 5) 12월 21일(경오)

조 <예조에서 산릉(왕릉) 예정지의 옛무덤을 철거할 때 보상해주는 기준을 아뢰다>라는 기사에 “산릉(山陵) 기지(基地)의 한정(限定)은 동쪽 벌고개(蜂古介)·가을고개(加乙古介)·미륵원(彌勒院)에서부터.”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벌고개는 지금 갈현동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넘어가는 벌고개를, 가을 고개는 갈현동의 갈고개(葛峴)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륵원이 갈고개에서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산릉 후보지란 바로 전왕인 대행왕 예종의 능(창릉) 후보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중종 30년 을미(1535, 가정 14) 9월 12일(경오)조 기사를 보자.

이때 왕은 제릉에 참배하기위하여 모화관(慕華館)<sup>2)</sup>을 출발하여 “사령(沙嶺 : 무악재)을 넘어 영서역(迎署驛 : 연신내 범서쇼핑 자리)에서

1) 이 미륵원 앞 전투에 관해선 삼천리 제7권 제11호(1935년 12월 01일자) <古戰場碧蹄館, 아울너 肅宗嬪墓昭寧園紀行>이란 기사에 “宣祖 26年 正月 26日 朔風の餘襲을 받으며 火箭같이 몰아 塔洞서 斥候部隊와 交火로 爲始하야”라 하여 사대수의 미륵원 앞 전투가 바로 탑동(탑골)에서 벌어진 전투와 동일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모화관(慕華館) :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던 영빈관(迎賓館)으로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있는 독립관의 전신이다.

소주정(小晝停)하고, 미륵원(彌勒院) 냇가<sup>3)</sup>에서 대주정(大晝停)하였다.”고 한다.

또 구과발 인공폭포 뒤쪽에 위치한 우봉김씨 양주파조인 김계동(金繼洞)의 묘 위치에 관해 1990년 3차로 편찬된 ‘우봉김씨 세보(牛峰金氏世譜)’에는 “미륵원(彌勒院) 건너편 양주군(楊州郡) 신혈리(新穴里) 금암(黔巖)”이라 되어 있다.<sup>4)</sup>

따라서 필자는 이 자리에 통일신라 말엽부터 고려 중엽까지 청담사가 존재했고,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미륵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45-4

종 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호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는 진관동 45-4호 금암문화공원<sup>5)</sup> 내에 위

3) 미륵원 냇가 : 발굴지 앞 냇가나 혹은 지금의 구과발 창릉천을 지칭하는 듯.

4) 김양수 외, 『조선후기외교의 주인공들』, 백산자료원, 16쪽 참조.

그런데 『우봉김씨세보(牛峰金氏世譜)』 시조 김계동(金繼洞)조에도 “墓楊州神穴里彌勒院越邊洞黔巖丙坐原雙墳”이라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 신혈리는 지금 진관동의 조선조 이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神穴里彌勒院”이라는 대목이다. 바로 미륵원이 지금의 구과발 일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5) 금암문화공원은 은평뉴타운 공사 전에는 한양주택 뒤쪽의 비닐하우스에 꽃재배를 하던 구과발 화훼단지였으나 은평뉴타운 공사로 인해 한양주택과 화훼단지인 은평뉴타운 10단지가 들어섰고, 2007년 5월 SH공사에서 금암문화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2012년 8월 16일 서울시 공인고시 219호로 ‘금암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6월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3년 11월 지역주민들에 의해 “금암문화예술제”가 개최된 바 있고, 동년 12월 13일 은평구청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6,857㎡이다.

치하고 있다. 이 비는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가 숙종의 능인 명릉(明陵)을 참배하고 돌아오면서 지난날 할아버지인 영조가 왕자시절 이곳에서 있었던 선행(善行)을 떠올리면서 이를 기리기 위해 1781년(정조 5) 30세의 나이에 직접 글을 짓고 세운 비6)이다.

비문에는 연잉군(延祊君, 훗날의 영조)이 왕자 시절인 1721년(경종 1)에 부왕(父王)인 숙종의 탄신일을 맞아 명릉(明陵 : 숙종릉)을 참배하고 난 뒤 돌아오는 길에 금암리(黔巖里, 구과밭의 옛 이름) 덕수천(德水川 : 창릉천)가에 있는 금암참(黔巖站 : 구과밭의 정식 이름)에 머물면서, 그곳 참장(站將)이 소도독을 잡았다는 말을 듣고 “소도독이 필시 기한(飢寒 : 굶주림과 추위)을 못 이겨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선처를 부탁하고 궁으로 돌아가니 세제(世弟)로 책봉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정조는 영조가 왕위에 올라 50여년간 세상에 많은 은덕을 베푼 치적(治績)의 징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과 왕이 친히 짓고 쓴 어필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8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다.

---

6) 그런데 『일성록(日省錄)』에 의하면, 정조가 친히 짓고 쓴 이 비문을 봉조하(奉朝賀)인 서명응(徐命膺)에게 윤색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서호수에게 이르기를, “검암비문(黔巖碑文)을 지금 친히 짓고 있는데, 자구(字句) 사이에 잘못된 곳이 있을 것 같아 봉조하(奉朝賀)에게 보내서 윤색하게 하고자 아침에 입시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니 내일 다시 와서 대령하라.” 하였다.」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건륭 46) 7월 25일(을축).

서명응이 아뢰기를, “태양미리해저(太陽未離海底)’를 ‘태양조리창해(太陽肇離滄海)’로 고치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리 고치라.” 하였다.

『일성록』 정조 5년 (1781, 건륭46) 7월 26일(병인)



### 금암문화공원과 기적비

당시에 이곳은 의주(義州)로 가는 과발(擺撥)의 두 번째 참사(站舍)인 금암참(黔巖站)이 있던 곳으로, 현재 참사는 없어지고 이 기적비와 하마비(下馬碑)만 남아 있다.

비의 형태는 방형대석(方形臺石)의 2단으로 된 비신 받침과 오석(烏石)으로 된 비신 위에 옥개형(屋蓋形)의 개석(蓋石)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평범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비신의 높이는 148cm이며, 폭은 68cm, 두께는 26cm로서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이 비석의 문화재적 가치는 영조대왕의 선행(善行)을 기록한 내용과 함께 바로 1781년(정조 5)에 왕인 정조가 직접 글을 짓고 세운 비석이란 점이다. 그는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180권 100책 10갑에 달하는 『홍재전서 弘齋全書』라는 방대한 전집(全集) 형태의 문집을 남겼다.<sup>7)</sup> 이러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기에 스스로 임금이자 스승인 군사(君師)로 자부하고 신하들을 영도할 수 있었다. 학문을 숭상하는 시대에 탁월한 학문적 능력으로 군사의 위상을 확보하여 문화국가를 통치할 수 있었다.<sup>8)</sup>

정조는 방대한 문집만큼이나 많은 글과 필적을 남겼는데, 시대에 따

7) 조선조 국왕의 문집으로는 기타 영조의 양성헌집(養性軒集), 장조의 의재고(毅齋稿), 순조의 『순재고(純齋稿)』, 헌종의 『원헌고(元軒稿)』, 철종의 『중재고(中齋稿)』, 고종의 『주연집(珠淵集)』, 순종의 『정헌집(正軒集)』 등이 있지만 전집 형태의 문집은 정조가 유일하다.

8) 「정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라 서풍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서풍상의 변화를 통해 정조 임금의 지향했던 서예적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조 어필은 조선 후기 어필 가운데 서예사적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고 할 것이다.<sup>9)</sup>

기적비의 서체는 제액(題額)부분은 전서(篆書) 대자로 ‘黔巖紀蹟碑銘(금암기적비명)’이라 되어 있고, 본문 부분은 우측에 비제(碑題)로 ‘黔巖紀蹟碑 并書(금암기적비병서)’라고 표기하고 비문을 우종서(右縱書)로 우에서 좌로 기록하고 있다.

정조는 『영우원비(永祐園碑)』부터 『정민시지장비(鄭民始之藏碑)』까지 총 15점의 비문을 남기고 있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정조 자신이 직접 지은 비문이 총 24건이 올라 있으나, 15점을 제외하고는 주위 신료들에게 쓰게 하거나 안진경(顔眞卿), 유공권(柳公權) 서(書)로 집자(集字)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 제액의 전서는 7점이 있는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랜 수련과정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직접 짓고 쓴 비문들이 상태가 좋았던 이유는 비각(碑閣)을 세우고, 강하고 좋은 석재에 글자를 새겼기 때문인데, 이는 오늘날 정조의 필적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되고 있다.<sup>10)</sup>

금암기적비 또한 최상질의 오석(烏石)을 사용하였으며, 새긴 글자에 붉은 색을 메웠으며<sup>11)</sup>, 지금은 없으나 당초에는 단청(丹青)을 칠한 비각(碑閣)<sup>12)</sup> 안에다 세우고<sup>13)</sup> 담장을 둘러<sup>14)</sup> 비바람으로부터 비석을

9) 이완우, 「정조어필과 군신지정(君臣之情)」

10) 이경창, 『正祖大王的 御筆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4, pp.51-52.

11) 『일성록』 정조 5년 (1781, 건륭46) 8월 13일(계미).

12) 『정조실록』 5년(1781) 8월 15일(을유)조.

이형규가 아뢰기를,

“비각은 소중히 하는 것이 있으니 회부곡(會付穀)을 가져다 써야겠지만, 문을 만드느니 일과 단청(丹青)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반드시 본영에서 진배(進排)하고자 합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암공원 하마비**

거나 잘 쓰는 서가들이 없었다. 그래서 정조 비문의 전서가 특이할만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전적 심미의식이 응축된 비의 심미성과도 잘 부합하여 정조의 전서가 돋보이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다.”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건륭 46) 7월6일(병오).

병조가 명릉 등에 행행할 때의 군령을 보고한 글에 “4월 28일에 출궁하여 검암(黔巖) 비각소(碑閣所)에서 주정(晝停)한다. - 궐문으로부터 26리 - ”라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 후기까지도 비각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광서19) 4월 14일(병인).

13)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건륭 46) 7월6일(병오).

훈련대장 구선복이 아뢰기를,

“검암(黔巖) 비각(碑閣)의 담장 밖은 협련군(挾輦軍)이 으레 환위(環衛)하였으나, 후작문(後作門)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각 담장 후면의 중문(中門)에 중월도(中月刀)로 작문(作門)하고, 후상군(後廂軍) 2초와 훈련도감 장교가 입회하여 바깥 환위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

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14)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건륭 51) 2월22일(병신).

15) 이경창, 전의 논문, p.52.

비의 상단에 ‘黔巖紀蹟碑銘’이라고 진전(秦篆)으로 쓴 전서는 안정되고 섬세하면서도 강하게 쓰고 있다. 명문은 초당(初唐)의 서풍을 보이는데, 유공권체의 균살이 빠진 획을 보여주면서도 글씨 곳곳에서 안진경 서풍이 보인다. 질박하면서도 당당한 품격의 글씨이다. 예를 들어 之자의 측법 그러니까 점을 찍을 때 也자의 적법에서 찍어 들어올려 빼는 모습 등을 보면 안진경 서풍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용인의 채제공(蔡濟恭) 뇌문비(誄文碑)와 비교하면 조금 마른 편이지만, 짧은 시절의 정조가 쓴 힘이 넘치는 글씨이다.<sup>16)</sup>

금암기적비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앞으로 비각 공사 후 국보나 보물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당초 참사가 정축년(1757, 영조33)에 처음으로 고쳐 세웠고, 정조 5년(1781)에 단청(丹青)을 칠했으며, 정조의 어필 현판(懸板)을 참사벽에 걸었던 관계로 하마비(下馬碑)를 세웠으며, 구 참사는 그대로 두고 신 참사를 세웠다. 현재 기적비 우측 약 50미터 지점에 이곳이 성역임을 표시하는 하마비(下馬碑)가 남아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현재 구과발역 4번 출구에 설치된 ‘구과발 터(舊擺撥址)’ 표석은 철거하고 현재의 공원 자리에 금암참지(黔巖站址)였음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금암기적비의 전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금암기적비명(黔巖紀蹟碑銘)

서쪽으로 고양군(高陽郡)을 향해 가다보면 30리 못미쳐서 발참(撥站)이 나타나는데, 금암참(黔巖站)이라 한다.

16) 이경창, 전의 논문, p.54.

서발(西撥)에는 수십 곳의 참사가 있지만, 특히 금암이 나라에 이름난 데는 까닭이 있다.

우리 황백조고(皇伯祖考, 景宗)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듬해 신축년(辛丑年)<sup>17</sup>에 우리 황조고(皇祖考, 英祖)께서는 잠저(潛邸)에 계시다가 8월 15일에 숙조(肅祖, 숙종)의 탄신(誕辰)을 맞아 명릉(明陵, 숙종의 능)을 참배하고, 고령(高嶺)의 농사(農舍)에서 5일 동안 머무르셨다.

곧이어 대궐로 돌아가 기거하기 위하여 말 한필에 두 명의 시동(侍童)을 데리고 저물녘에 농사(農舍)를 출발하였는데 덕수천(德水川)에 이르러 밤이 깊고 불이 없어 금암발참(黔巖撥站)에서 쉬게 되었다.

도착하여 얼마 지난 때에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앞 내를 건너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자가 돌아와 도둑이라고 고하였다.

황조고께서 이를 보고 안타까이 여겨 참장(站將)을 돌아보고 이르시기를 “저 소도둑은 흉년을 맞아 기한(飢寒, 굶주림과 추위)을 못이겨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에게 소가 없으면 무엇으로 농사를 짓겠는가? 참장이 비록 낮은 관직이나 그 또한 직책이니 그대의 재량대로 처리하라.” 하셨다. 이에 참장이 나가서 소를 찾아 주인에게 돌려 주고, 도적은 관에 고하여 형벌을 받게 하지 않았다.

새벽녘에 이르러 복어(僕御)<sup>18</sup>가 경성(京城)으로 돌아오니, 학가(鶴駕)<sup>19</sup>가 궁문(宮門) 밖에 의식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미 저사(儲嗣 : 세제)로 세워진 것이다.

참장에게 사실을 갖추어 역참(驛站)의 벽에 장차 기록하게 하니 참장 이성신(李聖臣)은 연안인(延安人)이다.

병자년(丙子年)<sup>20</sup> 봄에 황조고(영조)께서 명릉에 일이 있어 거둥하던 차에 이곳 발참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다. 성신을 찾으니 그는 이미

---

17) 경종1년, 1721년임.

18) 복어(僕御) : 말을 다루는 사람. 또는 마차의 말을 모는 하인.

19) 학가(鶴駕) : 황태자나 세자의 행차를 말함.

20) 영조 32년 즉 서기 1756년임.



죽은 후라 성신의 아들 인량(寅亮)을 만나보고, 활과 화살을 하사하고, 아버지의 옛 관직을 주어 세습하도록 하였다.

아아! 천지의 대덕(大德)이란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니 성인(聖人)이 그것을 법받아 원부(元符)로 심고자 하지만 주문적자(朱文赤字)같은 것은 없는 법이다. 아아! 황조고께서 금암에서 하신 한 마디 말씀은 애연(藹然)하여 곡절이 있도다.

결국 만물의 어짐이란 천지의 덕과 같은 것이니, 50여년간 세상에 많은 은덕을 베푼 치적(治績)의 징조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하물며 밤이 깊어 농사(農舍)를 떠난 것은 임금의 덕성을 간직한 것으로써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결국 이날의 일로 인한 것이었다. 비유하자면 태양이 푸른 바다에서 떠올라 이동할 때 상서로운 광채가 황도(黃道)에 앞서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니 이를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삼가 생각하옵건대 덕 있는 임금께서 계속하여 나온 것은 우리 왕가의 선행(善行)이 쌓여 과인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황조고(영조)께서는 숙종의 회갑(回甲)되는 해 그 달에 세자(世弟)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옥좌에 올라 왕통을 잇게 되었다.

과인이 편안히 다스릴 수 있게 된 기반이 60년 전의 같은 해의 일로 인한 것인데 지금 다시 그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소자(小子)가 8월에 명릉에 참배하려고 가다가 금암의 터에 이르러 작은 정성이 솟구친 것은 단지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만이 아닌 것이다.

참사(站舍)가 세월이 흘러 기울어졌으므로 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여 새로 보수토록 하였다. 수 묘(數畝)의 땅에 빗돌을 세우고 눈물을 닦으며 공경히 그 사실을 기록하노라. 다음과 같이 명한다.

상서로운 저 붉은 구름,  
금암 위에 떠 있네.

靄彼彤雲  
維巖之上

땅은 비를 피한 듯하고,	地疑避雨
산은 옥돌을 감춘 듯하네.	山似隱碭
해와 달은 빛을 발하고,	重輪發輝
모든 신령은 달려와 호위하네.	百靈奔衛
이 비석 오래 남으리,	龜頭不泐
영조할애비 쉬셨던 이곳에	英考攸憩

소자가 즉위한지 5년 되는 신축년(1781) 8월 1일에 공경히 짓고 쓰며, 15일에 세우노라

### 黔巖紀蹟碑銘

西去高陽郡 未三十里 而撥基站 曰黔巖 西撥數十 黔巖名于國者 有以也 粵我皇伯祖考卽阼之翌年辛丑 我皇祖考時在潛邸 八月十五日 以肅祖誕辰 拜明陵 住高嶺農舍五日 將筵闕起居一馬二僮 暮發 至德水川 夜深且無火 憩黔巖撥站 有頃 人有牽牛而過前川 從者後告以盜焉 皇祖考見之 閔然顧謂站將曰 彼歲儉而迫於飢寒也 然農者無牛 何以耕 站將雖卑 品職耳 爾其裁之 站將退 遂以牛歸其主 盜不告官抵罪 比昧爽 僕御還于京城 而鶴駕備儀於宮門之外 蓋已建儲也 事具在站將壁記 站將李聖臣 延安人也 丙子春 皇祖考有事明陵 駐蹕于撥站 訪聖臣 聖臣歿後 得聖臣子寅亮賚弓矢 授父職 世襲之 於戲 天地之大德曰生 聖人則之 以爲元符 而赤文朱字不與也 猗歟皇祖考黔巖一語 藹然有曲 遂萬物之仁 而與天地同其德 五十年覆燾涵濡之治 此其班矣 又況半夜傳舍 龍德潛藏 主鬯之托 適在是日 譬如太陽肇離乎滄海 瑞輝先戒於黃道 夫豈偶然也哉 恭惟太歲重光 我家之天休滋至 皇祖考以肅祖之回甲之年 若月入陞儲位 聖啓神承 基我太平萬歲 而舊甲依辰 今又臨矣 小子將以仲秋 祇謁明陵 歷膽遣躅于黔巖 微忱明發 不獨霜露之感 站舍歲久敬仄 命京畿觀察使 拓而新之 靈數畝地 豎以石 拉涕敬記其事實 系以銘銘曰 霽彼彤雲 維巖之上 地疑避雨 山似隱碭 重輪發輝 百靈奔衛 龜頭不泐 英考攸憩

小子嗣位之五年 辛丑秋八月初吉 敬製敬書 十五日立

본래 비석이 위치한 이곳의 법정동명은 구과발동(舊擺撥洞)이며, 행정동명은 진관동(津寬洞)인데, 조선조에는 ‘검바윗말’ 또는 ‘금암리(黔巖里)’로 불리던 곳이다. 서울 서북부(西北部)에 위치한 한양(漢陽)의 관문으로서, 중국을 오가는 사신이나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었다.

또한 과발(擺撥) 중 한양에서 의주(義州)로 가는 서발(西撥 : 騎撥)의 두 번째 참사인 금암참(黔巖站)이 있었으며, 임금이 행차 중 쉬어 가던 주정소(晝停所)가 있던 곳이다.

또 근래까지만 해도 ‘구과발 산대놀이’와 ‘구과발 단오놀이’, ‘북한산 도당굿’ 등이 행해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하다. 현재에도 연인원 수십만 명이 찾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 ◆ 우봉김씨(牛峰金氏) 묘역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92-1 일원

우봉김씨 묘역은 구과발역 사거리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50미터 정도 진행하다 오른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능선 경사면을 따라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이 묘역은 바로 역관집안으로 유명한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저자 김지남(金指南) 집안의 선산이다. 우봉김씨(牛峰金氏) 묘역은 이말산의 가장 서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22,000평의 묘역에 약 50기의 묘소가 집장(集葬)되어 있다. 이곳 우봉김씨 금암(黔巖) 묘역은 2009년 성역화 작업을 완료하여 새 모습을 갖췄다.



우봉김씨 파조 김계동 묘 전경

이곳은 우봉김씨 양주파(楊州派 : 일명 繼全公派) 묘역으로서, 파조는 익성(益成)의 3자 중 2자인 덕생(德生)이다. 이곳은 덕생의 손자인 계동(繼全) 이하의 묘가 계장되어 있다.

이 묘역에는 우봉김씨 양주파, 혹은 계동공파(繼全公派)의 파조인 계동(繼全)·의정(義精)·증 참판항서(贈參判 恒瑞)·만호 재겸(萬戶 載謙)·오위장 학조(五衛將 學祖)·열녀 증정부인 경주임씨(烈女 贈貞夫人 慶州林氏)·증예빈시정 수연(贈禮賓寺正 壽延)·증장례원판결사 덕춘(贈掌隸院判決事 德春) 등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載謙)·오위장 학조(五衛將 學祖)·열녀 증정부인 경주임씨(烈女 贈貞夫人 慶州林氏)·증예빈시정 수연(贈禮賓寺正 壽延)·증장례원판결사 덕춘(贈掌隸院判決事 德春) 등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석물로는 묘표·상석·향로석 등을 갖췄다. 이 중 묘표는 원래 繼全의 6세손인 지남(指南)이 계동 이하 4세의 표석을 세웠으나 오랜 풍상에 마모가 심하여 순조 5년(1805)에 9세인 익서(益瑞)가 다시 세운 것이다.

묘역에서 특히 주목되는 열녀 임씨 묘와 1896년(고종 33)에 러시아 황제 리콜라이 2세의 대관식(戴冠式)에 공사 민영환(民泳煥)을 수행하여 8개국을 견문하고 돌아온 김득련(金得鍊)의 묘일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열녀 임씨(烈女林氏) 묘

열녀 임씨(1596-1637)는 본관이 경주(慶州)로, 부사직(副司直)을 지낸 임번(林藩)의 딸이자, 증판윤(贈判尹) 여의(汝義)의 초배(初配)이

다.

임씨는 병자호란(丙子胡亂)에 강화도가 오랑캐에게 함락되자 정조를 지키고자 바다에 몸을 던졌으나, 결국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순절하여 정려(旌閭)를 하사받았다고 한다. 묘역의 봉분은 쌍분인데, 우측의 묘는 부군(夫君)이 아닌 친정아버지인 번의 묘이다. 이는 임씨가 무남독녀(無男獨女)로 친가에 부모의 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 평시의 소원에 따라 시가쪽 선산인 이곳에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예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예라 하겠다.



열녀임씨 묘역 전경

이곳 우봉김씨 금암(黔巖) 묘역에선 유일하게 이곳에만 문인석 한 쌍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열녀 임씨 묘에 딸린 것이라기보다는 부사직(중5품 무관직)을 지낸 임번의 묘에 딸린 것으로 추정된다.

## ◎ 역관 김득련(金得鍊) 묘

김득련(金得鍊 1852-1930)의 자는 윤구(允九), 호는 춘파(春坡)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재우(載禹)의 아들이다.

1873년(고종 10) 역과(譯科) 식년시(式年試)에 4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이후 봉사(奉事), 교회(教誨)를 지냈다. 1894년(고종 31)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의정부 참의(議政府參議)를 역임하고, 1896년(고종 33) 4월 러시아 황제 리콜라이 2세 대관식(戴冠式)에 러시아 특명 전권공사 2등 참서관(參書官)과 주임관 4등에 서임되어 특



### 역관 김득련 묘 전경

행 기록을 『환구일록(環璆日錄)』과 한시집(漢詩集)인 『환구음초(環璆唵艸)』로 기록했다.

『환구음초(環璆唵艸)』에는 4월 1일 인천항을 떠날 때부터 그 해 10월 21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행과정 중에 각 지역에서 견문한 내용들과 그에 대한 저자의 감흥을 적은 한시 120여 수가 실려 있다.

동일 저자의 『환구일록(環璆日錄)』·『부아기정(赴俄記程)』과 함께 당시 러시아의 사회 문화와 서양문물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 묘에는 2008년에 후손들이 조성한 방형(方形)의 호석(護石)과 상석, 향로석, 묘표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명 전권공사 민영환(閔泳煥)을 수행하여 다녀왔다.

이때 인천을 떠나 상해(上海)·나가사키(長崎)·동경(東京)·캐나다·뉴욕·런던·네덜란드·독일·폴란드를 지나 모스크바에 여장을 풀었고, 다시 수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견학한 후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이해 10월 하순 귀국하였다. 이때의 사

### 김득련(金得鍊)

1852(철종 3)~1930. 조선 말기의 문신. 역관(譯官).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윤구(允九). 호는 춘파(春坡).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저

자인 지남(指南)의 7대손이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채우(載禹)의 아들이다.

1873년(고종 10) 역과(譯科) 식년시(式年試)에 4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이후 봉사(奉事), 교회(教誨)·첨정(僉正)을 지냈다. 1888년(고종 25) 박문국 주사(博文局 主事)가 되었다가 같은 해 부사과(副司果)로 옮겼다. 1890년(고종 27) 한학당하역관(漢學堂下譯官)으로 가자(加資)의 은전을 받았으며, 부호군(副護軍)에 올랐다가 이해 10월에 오위장(五衛將)으로 승차하였다. 또다시 부호군으로 옮겼다가 1894년(고종 31)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의정부 참의(議政府參議)를 역임하고, 1895년(고종 32) 내각 참서관(內閣 參書官) 4등에 임용되었다.

1896년(고종 33) 4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戴冠式)에 부아특명전권공사(赴俄特命全權公使) 2등 참서관(參書官)과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되어 특명 전권공사 민영환(閔泳煥)을 수행하여 다녀왔다.

이때 인천을 떠나 상해(上海)·나가사키(長崎)·도쿄(東京)·벤쿠버·뉴욕·런던·베를린·바르샤바를 경유하여 모스크바에 여장을 풀었고, 다시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견학한 후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이해 10월 하순 귀국하였다. 이때의 사행 기록을 『환구일록(環璆日錄)』과 『부아기정(赴俄記程)』, 한시집(漢詩集)인 『환구음초(環璆吟艸)』로 기록했다. 여기에는 4월 1일 인천항을 떠날 때부터 그 해 10월 21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행과정 중에 각 지역에서 견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의 저서는 당시 러시아의 사회 문화와 서양문물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02년(광무 6) 군부 대신관방원(軍部 大臣官房員)에 임용되었으며, 1907년(광무 11) 남양군수(南陽郡守)가 되었고, 1910년(융희 4년) 정 3품에서 중2품으로 가자되는 은전을 입었다. (朴相進)

<참고문헌> 高宗實錄, 純宗實錄, 承政院日記, 牛峰金氏世譜, 環璆日記, 環璆唵艸, 赴俄記程, 海天秋帆

## ◆ 진관동생태계보전지역(진관동생태계보전지역)

소재지 : 진관동 287-3번지 일대

지정일 : 2002년 12월 30일

면적 : 16,639 평방 미터(5,033평, 5필지)

북한산 흥국사(興國寺) 입구 정류장 절골 마을 입구 맞은편 수려한 북한산 원효봉(元曉峰)과 의상봉(義湘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언덕 사이의 계곡부에 위치한 이곳은 본래 농사를 짓던 곳으로 경작을 중지한 이후 자연용출수로 수량이 풍부한 자연습지로 조성되었다.

2002년 12월 30일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 제 2002-448호로 지정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습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현재 이곳에는 고마리·갈대·물봉선·오이풀 등의 습지식물과 천연기념물인 오색딱다구리·흰눈썹황금새·박새·피꼬리 등이 서식하고 있어 우리 은평 지역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앞으로 자연 생태계 학습장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니 만큼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도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계 보전지역 전경



생태계 보전지역 전경2

<생태계보전지역 내 동식물분포 현황>

조 류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박새, 피꼬리, 왜가리, 직박구리, 해오라기, 할미새, 꿩(장끼), 멧비둘기, 쇠백로, 붉은머리오목눈이, 말뚝가리, 청호반새, 흰뺨검둥오리 등 42종 관찰
식 물	고마리, 갈대, 물봉선, 오이풀, 갯버들, 애기부들, 물억새, 줄, 가래, 버드나무, 애기뽕풀, 돌콩, 미국가막사리, 돼지풀, 환삼덩쿨 등 155종 관찰
양서·파충류	개구리류, 법종 보호종(환경부 보호종)인 맹꽁이 등 18종 확인
무서무척추동물	잠자리류, 물자라, 개아재비 등 117종 서식.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다양도가 높게 나타남.

◆ 삼천사(三千寺)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34

종 목 : 보물 제 657호

■ 창건과 연혁(沿革)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인 북한산 삼천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1745년(영조 21) 성능(聖能) 화상이 펴낸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이 책에 의하면 영조 21년(1745) 당시엔 이미 폐사(廢寺)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절 이름이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여지비고』엔 삼천사(三川寺)로, 『북한지』엔 삼천사(三千寺)로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은 후자의 표기를 따르고 있다. 이중 삼천사(三川寺)는 개천 세 개가 만나는 곳에 있다 하여 지은 것이며, 삼천사(三千寺)는 한 때 이 절에 3,000여명의 스님이 수도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창건 당시의 절터는 지금과는 다소 떨어져 있다. 마애불이 있는 곳에서 골짜기를 따라 약 1.5km쯤 올라가면 증취봉(甕炊峯) 자락의 울창한 숲속에 거대한 석축이 여러 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위에 주춧돌과 기단석, 대지국사비(大智國師碑)의 이수(螭首)와 귀부(龜趺), 우물터, 부도(浮屠), 석등(石燈) 받침, 등 거대한 석조물이 여러 곳에 걸쳐 흩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한 눈에 봐도 이곳이 처음 창건 당시의 절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지로 1964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최순우 선생이 이곳 삼천사 옛 터를 지표조사했을 때 귀부와 이수를 찾아내고 주변에서 비편을 발견하여 수습한 바 있다. 이 비편에서 ‘삼천사(三川寺)’, ‘삼천민사(三川民舍)’ 등 삼천사와 관련된 명문(銘文)과 간지명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 비문을 지은 이영간(李靈幹)이 고려 문종(文宗 : 1046~1063)때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낸 인물이고, 연대상으로 볼 때 대지국사는 현종 때 삼천사 주지를 지낸 법경(法鏡)스님으로 추정된다.



삼천사지 대지국사비 이수와 귀부



삼천사지 석등 받침

현재의 삼천사는 과거 국가에서 건립했던 거대한 사찰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도 범종각 중건을 준비하는 등 끊임없이 중창 불사(佛事)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삼천사에 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이 절의 정확한 연혁을 밝힐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만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3 「한성부」 <불우(佛宇)>조엔 ‘삼각산에 있는데, 고려 이영간(李靈幹)이 지은 비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대지국사비명(大智國師碑銘)은 숙종조 서화가 낭선군(郎善君) 이우(李倬)가 편저한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와 1831년 청나라 고증학자 유희해(劉喜海)가 편집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비문 일부가 실려 있으나, 대부분의 글자가 마멸된 상태이다.

삼천사는 현종(顯宗)이 삼천사 주지로 있던 법경(法鏡)을 자신에 부모의 원찰인 현화사(玄化寺) 주지로 삼고, 1020년(현종 11)에는 자신의 왕사로 임명한 것과, 마애여래입상의 양식 등으로 볼 때 이 시기에 국가와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룩된 거대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삼천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북한지(北漢誌)』,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전서(旅菴全書)』 중 「산수경(山水經)」 등에 단편적으로 전할 뿐이다. 1592년(조선 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승병들의 집합소로 활용되었으나 이

후 불에 타 없어졌다. 당시 인근의 벽제관 전투로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뒷날 이 절의 암자가 있던 자리에 진영이 중창하였다. 1950년 6·25 전쟁 때 불에 탄 것을 1960년에 중건하고, 오늘날과 같은 삼천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75년 지금의 주지인 성운(聖雲) 스님이 부임하여 복원불사를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어느 날 꿈에 삼천동 마애불을 뵈게 된다. 그 가르침을 따라 이곳에 부임하였을 당시 절에는 겨우 2칸짜리 초암(草庵)에 마애불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이에 마애불을 보물로 지정(보물 제 657호)하는 등 1999년까지 끊임없는 중창불사를 단행하게 되니 사찰의 모습이 일신되어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 ■ 성보문화재(聖寶文化財)

사찰의 전각과 성보 문화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1차 중창불사를 마친 삼천사는 대웅보전(大雄寶殿)을 중심으로 산령각(山靈閣), 천태각(天台閣),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 5층나한사리탑, 종형의 석가세존진신사리탑, 중창비, 관음상(觀音像), 지장보살입상(地藏菩薩立像), 입구의 5층석탑, 3채의 요사, 공양방, 수련원, 종무

소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진 대웅보전은 상단에 석가여래삼존상을 모시고, 뒤에는 영산회상도를 목각으로 새겨 봉안했다. 이어 십육나한을 비롯한 5백나한상을 뒤쪽벽에 안치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중단에는 104위를 모신 신중탱화를 조성했으며, 왼쪽에는 지장보살상을 봉안하였다.



삼천사 대웅전 전경



삼천사 목곡

산령각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1995년에 개축한 건물이다. 내부에는 목각으로 된 산신탕화를 중심으로 좌우로 역시 목각으로 된 독성탱화와 칠성탱화를 봉안하고 있다.

대웅보전 뒤편에 위치한 종모양의 사리탑은 1988년 성운스님이 미얀마를 성지순례할 때 마하시타타나 사원에서 아판디타 대승정(大僧正)으로부터 건네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봉안하였다.

개울 건너편 바위 위에 있는 5층의 나한사리탑 또한 미얀마를 성지순례를 할 때 같은 절에서 받은 나한사리를 봉안한 것이다.

이밖에도 절 입구 오른쪽에 화강암을 깎아 만든 5좌 높이의 좌대에 15자 높이로 조성된 지장보살상이 서 있다. 대좌 둘레에는 심우도(尋牛圖)와 시왕도(十王圖)가 새겨져 있다.

### ◎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三川寺址磨崖如來立像)

산령각 바로 아래 병풍바위에 있는 삼천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마애여래입상은 전체 높이가 3.02m, 불상의 높이만 2.6m가 된다. 고려 불상 중 대표작의 하나로 평가되는데, 머리 광배(光背)는 겹둥근 무늬로 민머리(素髮)에 상투 모양의 육계(肉髻)가 큼직하게 솟아 있다. 돌을새김을 한 얼굴에서는 온화하면서도 중후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상체는 어깨가 벌어져 건장한 모습인데, U자형으로 넓게 트인 가슴 사이로는 내의와 바지의 띠매듭이 드러나고 있다. 수인을 보면 오른손은 아래를 향하고 왼손은 배 앞쪽으로 들어올린 본존불에서 흔히 나타



삼천사 진인사리탑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나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다.

옷은 양어깨에 걸쳐 입고 있는 통견의(通肩衣)로 신체에 비해 다소 두껍게 나타내고 있어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발밑의 대좌는 연꽃잎이 위쪽으로 피어난 앙련의 연화좌(蓮花座)이며, 꽃잎은 단판중엽이고 꽃잎사이에는 간엽이 표현되어 있다. 입상은 양각과 음각의 수법을 겸용한 특이한 조각이며 시각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신앙의 발로인지 근년에 이르러 안면(顔面)을 제외한 윤곽에 금박을 칠했다.

불상의 어깨 좌우에 큰 4각형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애불 앞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목조 전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 위에는 또 다른 큰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불상의 보개(寶蓋)처럼 보인다. 입상의 조성 시기는 불상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초기로 추정된다.